

과학 보도와 과학 저널리즘

김영욱, 박성철 지음, 한국언론재단, 2005

글 | 이덕환 _ 서강대 화학과 교수 duckhwan@sogang.ac.kr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과학 보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우리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황우석 스타 만들기’의 핵심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난자 채취 과정의 윤리 문제와 논문 조작을 밝혀내는 기폭제의 역할을 했던 것도 역시 똑같은 언론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 보도와 과학 저널리즘의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이 정말 적나라하게 확인되었다.

과학이 중요한 이유

오늘날의 과학은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사람들이 여유 시간에 즐기는 ‘교양물’ 수준의 것은 더욱 아니다. 여전히 과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놀라운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날 모두가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개인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과학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민주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민주 시민이 참여하게 되는 사회적 합의의 대부분이 과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합의는 결국 사회 전체의 기반을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의 기술은 어쩔 수 없이 상당한 수준의 위험 요인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인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모든 위험 요인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원만한 사회적 합의는 귀중한 사회적 자원을 위험성 감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과학은 개인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과학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첨단 과학의 내용은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과학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과학 지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땀을 흘려왔는가를 생각하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과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다. 그러나 그런 교육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일 수도 없다. 결국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과학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제도적이고 효율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언론이 그런 목적에 가장 적합한 사회 영역임에 틀림이 없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 보도와 저널리즘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과학 저널리즘의 사회적 역할

과학 저널리즘은 자연과학과 공학의 영역인 과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인 저널리즘을 연결해주는 학제간 분야이고, 과학 보도는 그런 분야의 현실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두 분야'의 단절이 극심한 우리 사회에서 과학 저널리즘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했고, 과학 보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나마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노력도 본질적인 '국민의 과학화'가 아니라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과학의 대중화'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황우석 사태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었듯이 이제 우리 사회가 과학 저널리즘과 과학 보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게 되었다. 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낭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버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제 과학 저널리즘은 과학이 일부 사람들의 '교양'이나 전문가들의 전문물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계몽하는 역할을 담

당해야 한다. 그렇다고 과학 저널리즘이 과학계에서 생산되는 과학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해주는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대부분의 과학 지식은 일반인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과학 저널리즘은 현대 과학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의제(agenda)를 제대로 설정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인 공론이 이루어지는 터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촉매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과학 저널리즘이 본연의 사회적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우석 사태에서 보았듯이 과학계의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과학 저널리즘의 종사자들이 스스로가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독자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과학적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과학 저널리즘은 과학계와 과학 정책 담당자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담당해야만 한다.

과학 저널리즘의 윤리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과학 저널리즘의 윤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성이다. 물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 문제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 저널리즘 종사자들의 충분한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실성을 추구하기 위한 예민성과 과학 연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과학 저널리즘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학기술계의 책임과 의무도 있다. 과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저널리즘 종사자들이 정확한 과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고, 모두를 위한 언론을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㉓

<과학독서아카데미 추천 도서>

1. 『빙하기』 존 그리빈, 김용서, 사이언스북스, 2006
2. 『행성이야기』 데이바 소벨, 김옥진, 생각의나무, 2006
3. 『시간의 화살』 리처드 모리스, 김현근, 소학사, 2005
4. 『와일드 하모니』 윌리엄 프루이트, 이한음, 이다미디어, 2006
5. 『미래』 수전 그린필드, 전대호, 지호, 2005